반려동물에 대한 편견과 부끄러움

송치승 교수의

경제 읽기

KB금융그룹이 지난해 6월 발표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 1546만 명에 달한다. 이 수치는 전체 인구의 3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필자도 도베르만 핀셔 1마리와 토이 푸들 1마리를 집에서 키우고 있다. 대형견 도베르만을 키우게 된 원인이 '미니핀'이라고 판매한 분양업자의 속임수에 의해 시작됐다. 분양 한 달 만에 소형견이 아니라 대형견임을 알게되면서 분양업자한테 되돌리려 하던 참에, 2016년 당시 지상파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강아지 공장의 열악한 환경'을 접하면서 "우리가 책임지자"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바꿨다. 결과는 옳았다. 두 견공이 우리 집에 끊임없는 웃음과 행복을 안겨주는 가족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서다.

필자가 난데없이 병오년 새해 벽두에 반려견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반려견에 대한 편견과 우리 인간의 부끄러운 행동을 지적하고, 동물복지의 제고와 함께 우리 사회가 정화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먼저, 우리 사회의 편견을 보자. 첫째는 반려견을 소유물로 인식하는 사고다. 감정을 지닌 반려견은 정서적으로 인간과 교감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이런 반려견에 대한 견주의 학대, 훈육 명목의 체벌, 병든 반려견의 유기 등은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 사고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둘째는 과거 사회에서 만연되었던 반려견에 대해 하찮고, 때론 필요치 않은 존재로의 인식이다. 우리말의 상소리로 '개소리, 개자식, 개새끼' 등과 같이 '개'란 접두사가 단어에 붙는 말들이 적지 않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접두사 '개'의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부끄러움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째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만, 반려견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가시권에 드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채우려는 욕심이 있다. 반면 반려견은 가시권 내에서도 아주 자신의 좁은 영역에 대해서만 욕심을 가지며 나머지는 공생으로 받아들인다.

둘째는 반려견의 충성심과 복종이다. 주인이 반려견을 버리는 일은 있어도, 반려견이 주인을 배반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 탐지견, 안내견, 인명구조견 등과 같이 공공을 위해 봉사하는 공익견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려견은 자폐아, 따돌림을 받는 아동, 독거노인 등을 위한 심리치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셋째는 반려견의 주인에 대한 무한 신뢰와 이해심이다. 보통 반려견은 오토바이나 진공청소기와 같은 굉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동물치료사들은 이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견주가 직접 이를 타보거나 작동하는 걸 권한다. 이는 주인이 반려견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 아님을 느끼게 하여, 반려견이 주인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행위이다.

반려견은 우리 인간과 사회적 감정을 교류하는 매우 유용한 동반자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 그런데, 최근 20대 젊은이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좋은 의미로서 '개'란 접두사가 붙어 '개좋다, 개신나다, 개이득' 등의 속어가 출현하고있음은 눈여겨볼 일이다. 이런 사회의 언어변화 만큼, 반려견 복지도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중국 AI 논란보다 더 불편한 국산 AI의 공백

기자 수첩

최빛나 〈IT부〉

최근 IT 업계에서는 중국산 인공지능 AI 활용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국내 기업과 개발 현장에서 중국계 생성형 AI 모델이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기술 종속과 보안 우려가 동시에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대형언어모델은 글로벌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성능 대비 비용 효율이 높다는 평가를 받으며 빠르게 확산됐다. 코드 생성과 수학 추론 분야에서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실무 활용 사례도 늘고 있다.

중국 빅테크 기업들도 이미 AI를 핵심 사업으로 키우고 있다. 바이두는 생성형 AI '어니 봇'을 검색·클라우드·자율주행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고 있으며, 알리바바는 자사 클라우드 고객을 대상으로 대규모 언어모델을 API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 모델은 동남아와 중동, 일부 유럽 시장에서도 실제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을 바라보는 국내 논쟁이 '중국 AI를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정작 현장에서 더 절박한 질문은 따로 있다. 중국 AI를 쓰지 않으면, 당장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국산 AI가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현실적으로 많은 기업과 개발자들은 "성능·가격·안정성 면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국산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말한다. 국산 AI가 없어서가 아니라, 범용 서비스의 기본값으로 자리 잡기엔 아직 허들이 높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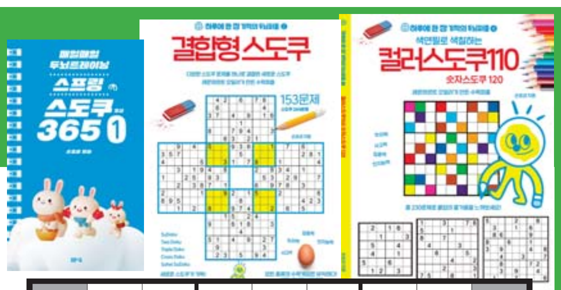
중국 AI의 리스크는 기술 자체보다 제도와 구조에 있다.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가 정부 요청 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우려 요소다. 특히 공공 행정, 금융, 의료, 내부 업무 문서 처리와 같은 영역에서는 민감도가 높다. 다만 이 역시 '중국 AI는 무조건 배제'라는 단순한 결론으로 끝낼 문제는 아니다. 어디에, 어떤 데이터로, 어떤 통제 하에 사용했는지가 핵심이다.

중국 AI 논란이 반복될수록 드러나는 것은 국산 AI 생태계의 공백이다. 기술 주권을 말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부족하다면 논쟁은 감정 소모로 끝난다. 필요한 것은 사용 금지 선언이 아니라, 쓰고 싶어지는 국산 AI를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전략이다. 중국 AI를 둘러싼 소란이 불편한 이유는, 그 끝에 결국 '국산 AI의 부재'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기 때문이다.

/vitna@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8	3				4	9	7	
								3
			2			4		5
			6					
				5				
					9			
2		6			1			
7								
	5	3	8				4	7

			8					
				4		2	8	
2		6						
3	2	7						
9								6
						7	1	9
						5		1
	4	5		8				
					4			

8	3	5	1	6	4	9	7	2
6	4	2	9	7	5	1	8	3
9	7	1	2	8	3	4	6	5
4	2	9	6	1	7	5	3	8
3	1	7	4	5	8	2	9	6
5	6	8	3	2	9	7	1	4
2	8	6	7	4	1	3	5	9
7	9	4	5	3	6	8	2	1
1	5	3	8	9	2	6	4	7

4	7	9	8	3	2	1	6	5
5	3	1	6	4	9	2	8	7
2	8	6	5	1	7	9	3	4
3	2	7	1	9	6	4	5	8
9	1	8	4	7	5	3	2	6
6	5	4	3	2	8	7	1	9
8	9	2	7	6	3	5	4	1
7	4	5	2	8	1	6	9	3
1	6	3	9	5	4	8	7	2

오늘의 운세

1월 16일 (음 11월 28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작은 일에 집착하다 보면 눈앞의 이익도 놓친다. **48년생** 상사의 험담을 논하지 마라. **60년생** 늘 준비하자. **72년생** 결혼의 인연이 되니 재물 이상으로 값지다. **84년생**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지 못하니 문서 잘 살펴라.

소 **37년생** 마음은 바쁘지만 따라가지 못해 답답. **49년생** 송사에 걸릴라 다툼에 참견마다. **61년생** 토끼띠와 일하려다 중도 포기된다. **73년생** 동업으로 인해 이상과 현실에서 고민이 생기는 하루. **85년생** 날이 밝아 오니 고민이 사라진다.

호랑이 **38년생** 이성 간에 생각이 다르니 다툼으로 번지지 않도록. **50년생** 사고의 후유증이 되살아나서 심신이 괴롭다. **62년생** 아침부터 바빠진다. **74년생** 연인에게 지나친 간섭은 집착기로 보일 수. **86년생** 뒤늦게 경쟁자가 생기니 양보하자.

토끼 **39년생** 작은 이익이 생겨서 활기차다. **51년생**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데. **63년생** 자금계획이 생기니 의욕도 충천. **75년생** 부부간에 지켜야 할 일이 깨어져 너무 큰 상처를 받는다. **87년생** 참석해야 할 경조사를 잘 챙겨라.

용 **40년생** 음의 기운이 강하니 새 이성에 눈을 뜬다. **52년생** 수입과 지출을 적어보라. **64년생** 분노 조절 상대를 직장에서 찾지 말도록. **76년생** 기회가 오는 운세이니 스케줄관리부터. **88년생** 동업자와 문제가 있으나 서로 양보하게 된다.

뱀 **41년생** 작은 이익 때문에 친구와 분쟁이 생기니 신중히 생각하라. **53년생** 하루가 조용하다. **65년생** 컨디션 조절이 필요. **77년생** 계약 문제는 오후에 물꼬가 트인다. **89년생**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아직 포기하지 말라 내일이 있다.

말 **42년생** 진행하는 일에 결과가 따른다. **54년생** 영업에서 큰 이익이 기다리고 있다. **66년생** 연구발표로 명성을 얻게 되어 행운이다. **78년생** 산행에서 시간표를 다시 짜야 할 필요성이. **90년생** 비 온 뒤에 다시 땅이 굳어지는 것과 같다.

양 **43년생** 요행을 바라거나 일을 미루면 손재. **55년생** 활력이 이니 조직에도 이득이 생김. **67년생** 지속해서 나가는 자세로 영업에 몰두하자. **79년생** 부동산재개발도 해결될 것이나 기다려야. **91년생** 돼지띠와의 거래가 순조로우니 경사롭다.

원숭이 **44년생** 노력하여 일이 풀리니 근심이 사라진다. **56년생** 혼자만의 명상을 해보라. **68년생** 남의 눈치보다는 노력하여 능력을 발휘하자. **80년생** 경조사는 회의로써 의논하여 일의 성취가 된다. **92년생** 저녁에 일찍 귀가하여 지출을 줄이자.

닭 **45년생**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으니 먼저 베풀어라. **57년생** 분수를 알면 행운이 찾아온다. **69년생** 내 할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마라. **81년생** 중이 제 머리 못 깎으니 협조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93년생** 공짜 좋아하다 망신 수가 발생.

개 **46년생** 가정사 이별선택의 갈림길에서 갈등이다. **58년생** 부부간에 모처럼 외식으로 즐겁다. **70년생** 시간약속을 잘 지켜라. **82년생** 애초에 포용력을 발휘하면 서로 간에 도움이다. **94년생** 회사 내부의 낭비 요소를 찾아 밑 빠진 독을 막도록.

돼지 **47년생** 이성간 조건 없는 사귐이 진정한 교제는 절대 아니다. **59년생** 결정이 늦어져 시간만 간다. **71년생** 이론적 토대가 있어야 할 듯. **83년생** 가능한 언쟁하는 자리는 피하자. **95년생** 가까운 사람과 금전거래 하느니 그냥 주는 것을 선택.

김상회의 四季

오행 상식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작은 월광사의 신도들은 일, 이년 정도 법회에 참석해주는 신참에 속하는 분들도 있지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인연을 맺어, 10년지기 신도분들 등등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분들이다. 한국의 불자들은 전국의 천년 고찰뿐만 아니라 평생에 한 번 참배하는 사찰이나 암자라 할지라도 모두 자기 원찰처럼 친근하게 불법 인연들을 맺고 있기에 필자는 초하루나 보름 법회나 기도를 하지 않고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을 법회 일로 하여 신도분들의 시간적 중복에 대해 배려를 하고 있다. 예불과 법문이 끝나면 점심 공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신도분들의 궁금증이나 답답함을 즉문즉설처럼 나눈다. 금번 12월 법회 때 일이다. 한 신도분이 질문을 하려 일어서는데 필자가 그 신도분의 안색을 보는 순간 건강에 문제가 느껴졌다.

안색이 빛이 흐려지고 거뭇해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건강 수에 관해 질문한다. 먹어도 기운이 없고 조바심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사주명조에 수(水) 오행이 없어 평상시에도 물을 잘 마셔줘야 한다. 이런 경우 차나 커피는 이뇨작용이 강하여 오히려 수분을 더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대운이나 세운에서 사주명조에 부족한 水기운을 채워주는 운기가 와야 하는데 大運도 水기운이 아닌 데다가 12월은 乙巳年이니 세운에서도 도와주질 않는다. 이런 경우는 뜻하는 일도 지지부진하거나 건강도 피곤함을 느낀다. 이 경우는 水기운을 조달해줘야 하는데 차나 커피를 마시면 오히려 내장 기관과 피부 속의 물까지 빼어 가니 세포 내 수분부족으로 신진대사도 안 좋아지고 안색은 윤기가 부족해져 탁해진다. 당장 커피와 차를 끊고 물만 잘 마셔줘도 건강에 도움이 됨을 얘기해 주었다. 생활 방편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3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3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